

## 일본의 “동아시아 EPA” 구상

2006. 04. 07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kiep.go.kr]

### 주요 내용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4일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중핵으로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EPA” 구상을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OECD를 모방한 동아시아판 OECD의 설립구상을 발표하였다. “동아시아 EPA” 구상은 2008년 협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SEAN, 한·중·일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포함하는 거대한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일본정부는 아시아판 OECD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자료에서는 일본정부의 구상과 관련된 신문기사 및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구상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1. 요미우리 신문 기사(2006년 4월 4일)

#### 동아시아 경제연대구상, 일본 주도로 16개국 공동체

경제산업성은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느슨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축으로 한 포괄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EPA(경제연대협정)” 구상을 결정했다.

대상은 일본과 ASEAN 10,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16개국으로 2008년에 교섭을 개시하여 2010년 체결을 목표로 한다. 경제산업장관이 7일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창한다. 구상은 정부가 5월에 확정하는 “글로벌 전략”의 중핵이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향하여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EPA” 구상이 상정하는 참가국의 인구는 합계 약 30억인으로 세계의 약 절반. 국내총생산은 9조 1,000억 달러(2004)에 달하고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실현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가하는 NAFTA, EU 등에 필적하는 대형 경제연대가 된다.

EPA는 관세의 철폐·인하 등의 FTA에 투자, 서비스, 인적 이동의 자유화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경제산업성은 동아시아 EPA 체결에 의한 경제효과를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일본의 GDP가 약 5조 엔, 역내 전체 GDP가 약 25조 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경제산업성 장관 기자회견 내용(2006년 4월 4일)

동아시아 EPA 구상의 추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 전략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구상을 제창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동아시아 EPA 구상”, 둘째는 “동아시아관 OECD 구상”입니다. “동아시아 EPA”의 대상은 ASEAN + 한·중·일 + 인도·호주·뉴질랜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아시아 EPA는 2008년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관 OECD 구상”에 대해서 입니다만,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母體를 제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EPA의 추진이나 ASEAN+3 추진체제 하에서 다양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연구, 분석, 정책제언 등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OECD를 참고로 하여 동아시아관 OECD의 창설을 아시아 각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첫 사업으로서 ASEAN 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연구센터를 일본의 구체적 협력 사업으로서 설립하고자 합니다. 연구센터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만, 통상 일본이라고 생각하지만 ASEAN 전체를 생각하면 ASEAN 국가 중 열의가 있고 충분히 협력할 의사가 있는 나라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 의견을 총리에게 말씀드렸

고 총리도 저의 생각에 동의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일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 센터는 ASEAN에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3. 구상의 목적

- 위와 같은 일본의 구상의 핵심은 첫째, 동아시아의 범위를 ASEAN+3에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로 확대하는 것, 둘째, 아시아판 OECD를 설립하여 정책제언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이러한 제안의 목적은 이하와 같음.
  - 배경으로서는 ASEAN을 둘러싼 중·일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일본은 현재 인도 및 호주와 FTA 교섭을 전제로 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중국은 2002년 ASEAN과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였고 농산물의 Early Harvest를 실시.
  - 특히 아시아판 OECD를 설립하여 일본 주도의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제언을 유도하여 중국을 견제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제안은 2006년 4월 7일 개최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총리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경제산업성은 5월 중에 동 제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 다만, 동 구상에 대한 일본정부 내부의 의견이 완전히 조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동 제안이 향후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